

8월의 기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3장 47절>

- 1.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님을 DCEM의 총재 목사님
으로 세워 주시고 국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
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 코로나19의 종식이 속히 다가와 많은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주
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갈등과 전쟁
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4.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
터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살 수 있
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5.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
소서.
6.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
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미국 산호세에서 집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웅~” 소리가 나더니
창문도 침대도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긴급 상황”이라며 “지진이 일어났으니 모두 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걸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층 정도에 머물
었는데, 순간 전등불도 꺼져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복
도에 사람들이 꽂 들어차서 죽을까봐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지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에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줄이 있고, 설 수 있는
반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
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지진이 집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
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모두 다 저를
따르십시오. 함께 내려갑시다”라고 말한 뒤, 제가 앞에 서자 전
부 줄을 서서 “하나 둘, 하나 둘, 예수님, 지저스, 지저스”라고 따
라 하면서 20층 계단을 걸어서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따라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예수님” 하는 나에게 전부 다 따라붙더
라고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
에 빌딩 밖에 나와서도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도 없
었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내 말밖에 안 믿어요. 그 예수 그
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 바울과 실라 이
야기를 했습니다.

옛사람 말에 의하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와 구체적인
꿈과 확신에 찬 믿음과 감사 찬송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생
활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
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
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
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
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4년 몽골 성회



지난 2004년 9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가
개최되어 몽골 현지 기독교 유사이래 최대 규
모의 집회로 기록되었다. 아시아의 중앙 내륙
에 위치한 몽골은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이지만 심각
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버리
고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개방외교와 자
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몽골 성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몽골
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참석자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인
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조용기牧사는 젊은 시절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구했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
병이 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대
교회에서 사역하며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와 함께 “약 10년 전부터
하나님은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
음을 주셨다”라며 “그래서 10년을 기다려 이
제 몽골에 왔다”고 전했다. 조용기 목사의 간
증은 몽골 사람들의 가슴에 강한 도전을 주었

다.
몽골의 국영TV 방송사와 유력 일간지 등에
서 앞다투어 조용기 목사의 몽골 성회 소식을
다뤘고, 당시 몽골의 바가반디 대통령은 조용
기 목사를 대통령 궁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
기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몽골의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몽골은 과거 전세계를 지배했
던 나라였던 만큼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몽골을
건설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라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식욕과 성욕이며 여러 가지 육체를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세상에 출세하여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고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우쭐거리며 교만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마귀야, 마음대로 출입하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공격하면 그대로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천만 명이 되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대적하고 소금은 부패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이 다가올 때, 그대로 어두움을 받아들여서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과 함께 부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사회에 대한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삶을

우리의 싸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12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허리는 몸의 기둥이요 중심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전신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신앙생활에도 허리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의 고통과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할 때,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의지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혈로 값 주고 사신 용서와 의의 흉배를 붙이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는 모든 생각과 사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온갖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갈보리 대속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성령의 운행이 있어야

만 됩니다. 지식이 있는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언제나 "성령님도 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자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런 병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왜 필요하나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막연한 믿음인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마음에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목회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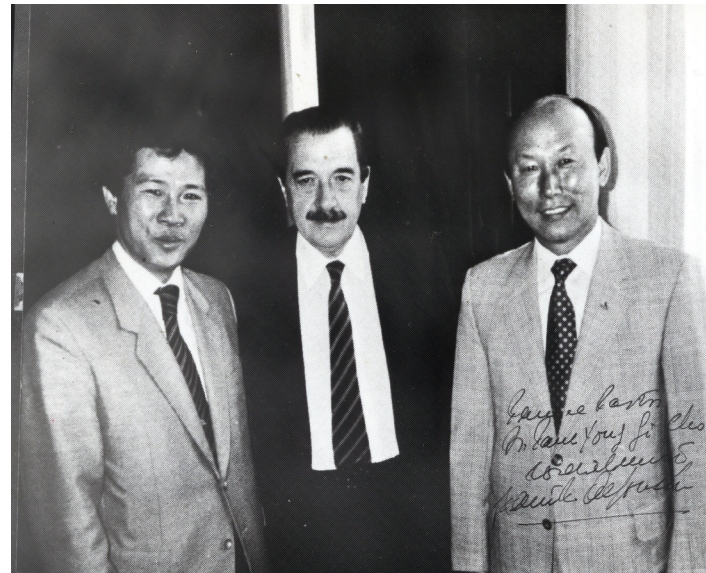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물러서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집: 조용기 목사님의 대륙별 해외성회 ⑧

남아메리카(II)



▲ 1987년 아르헨티나 알폰신 대통령과 조용기 목사



▲ 2002년 11월 엘살바도르 성회



▲ 2002년 11월 온두라스 성회



▲ 2004년 과테말라 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남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선교활동은 남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민보다 현지인 위주로 전개되었다. 교민 위주의 테두리를 벗어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들이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아메리카 현지에 신학 교육 기관을 세워 현지 제자를 키워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를 향한 끝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부음을 받은 현지인들은 한국에서 남아메리카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함께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활발히 복음 전파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성회는 아르헨티나 개신교 역사상 최대의 집회로 기록되었다. 성회가 열린 3일 동안 6만여 명이 성회에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단순하지만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 기간 중 당시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대통령과 대통령 궁에서 환담을 나누며 선교활동과 더불어 민간인의 신분으로 외교사절단의 역할까지 해내 그 의미가 남다른 성회였다.

지난 2006년에는 남아메리카 각국의 대사

들이 한국의 조용기 목사를 찾아와 여의도에 오찬모임을 갖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가 남아메리카의 영적 구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세계적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남아메리카 이외의 대륙에서도 조용기 목사가 해외성회를 인도할 때면 개최 국가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국민으로 대우하며 큰 관심을 보인다. 조용기 목사의 선교를 향한 의지와 노력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